

송광사 뿌리는 공동체 결사 정신

‘수선사 16국사의 위상과 승보종찰 송광사’ 서 황인규 교수 강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보종찰에는 불보사찰 양산 통도사와 법보사찰 합천 해인사, 승보사찰 송광사가 있다.

송광사는 당대의 공인된 큰스님이라 할 수 있는 국사(國師)를 16인이나 배출한 사찰이다.

보조국사 지눌과 그의 제자 진각 국사 핵심은 고려 중기 신앙결사인 수선사를 전개했고 이를 이어받은 15국사의 업적은 고려 불교계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수선사 16국사의 위상과 승보종찰 송광사의 관계를 학술적으로 조명한 논문이 발표됐다.

황인규 동국대 교수는 보조사상 연구원(원장 법산)이 6월 19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개최한 제92차 정기 월례학술회에서 ‘수선사 16국사의 위상과 승보종찰 송광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송광사가 승보종찰이 된 것은 고려 후기 수선사 16국사를

변혁의 시기와 불교계의

일시 : 6월 19일(토) 오후 2시 | 장소 :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 | 후원 : 조계총림



황인규 교수는 6월 19일 보조사상연구원 월례학술회에서 승보종찰 송광사와 16국사의 업적을 다루며 고려시대 불교의 위상을 조명했다.

조선 중기 부류 스님과 그 문도들이 사세의 진작과 함께 16국사를 선양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부류 스님 등 법승들의

선양 외에도 송광사만의 특출한 수행가풍이 승보종찰의 위의를 갖췄다고 진단했다.

송광사가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과 제자 핵심이 신앙결사를 전개하면서 공동체 모임의 뜻을 지닌 수선사(修禪社)로서 거듭났는데, 이때 지눌과 핵심이 펼친 강화선종은 한국 불교 뿐만 아니라 불교를 대표하는 선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설명이다.

황인규 교수는 법손의 선양과 특출한 수행가풍이 조선 중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을 신앙결사 운동으로 집어냈다.

황 교수는 “오늘의 송광사가 있게 된 것은 중국 동진의 고승혜원의 백련결사에서 시작된 신앙결사운동의 영향이다. 결사는 고승을 중심으로 관료 지식인 보통사람들이 참여한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결사인 향도(香徒)로 발전했고 조선 후기에는 두레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국사 지눌은 1200년 송광산 길상사에서 11년간 대중에게 불법을 펼쳤다.

지눌은 오로지 계율로써 두타행을 펼쳤다. 지눌의 소문을 듣고 사방의 승려와 속인이 몰려들어 송광산은 성시를 이뤘다.

황 교수는 “지눌의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명리와 벼슬 처지를 버리

고 승려가 된 사람도 있었고 왕공과 선비와 서인들이 수선사에 들어온 자도 수백 명에 이르렀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지눌의 명성을 듣고 흠모했던 고려 희종은 왕위에 오른 뒤 송광사를 조계산으로, 길상사를 수선사로 고쳐 사액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방에 펼친 지눌의 가르침은 그의 법맥을 이은 15국사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15국사의 위상은 개경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지눌의 법맥은 당시 불교계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15국사 중 몽어는 수선사의 세력을 확장시켰고, 혼원은 제2의 수선사인 선원사 사주를 겸하면서 왕사로 책봉돼 당시 불교계를 주도했다. 천영은 9산문도회를 주관하는 등 당시 사세를 보강하기 위해 원황제의 도움을 받았다. 만장은 중국 임제종의 몽산덕이와 교류했고 개경으로 올라가 묘명종자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북구는 왕사로 책봉돼 불교계를 대표하며 수선사의 13대 전통을 확고히 했다. 당시 북구의 문도는 핵심과 같은 규모로 1000여 명에 달했다.

황 교수는 “수선사 15국사는 고려 시대 불교계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16국사의 위상이 승보종찰로 불릴 만큼 정립된 것은 빨라야 조선 초 이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16국사의 위상은 고봉법장(1395~1420)의 입적 이후에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황인규 교수는 “지눌 등 16국사는 최치원, 설총, 정몽주 등 문묘에서 배향하는 대표적 유학자인 중국 18현에 비교될 만큼 높이 추앙됐다”면서 “이는 고려말부터 산문 중심 불교가 문종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문종 중심의 운운원리는 조선 중기 이후 법통설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지눌의 신앙결사는 승보종찰로의 송광사 위상을 굳건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근·현대에는 송광사에 조계총림을 개설케 하고, 전국적인 신도조직인 불일회 창립으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냐은 기자 bothyung@buddhapia.com

조계종 조계의 국사 학술서 나와

김광식 교수 국내 최초 ‘도의 국사 연구’

한국 불교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종단명을 쓴 종조(宗祖) 도의 국사를 다룬 학술서가 출간됐다. 국내에서 도의 국사를 다룬 학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지금껏 도의 국사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과 학술행사는 있어 왔지만 그 연구 성과물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발간한 적은 없었다”고 책의 서두에 밝히며 도의 국사의 생애와 중국에서의 구법, 신라 하대의 선문 개창 및 한국 남종선과 조종론(宗祖論)을 다룬 <도의국사 연구>(인북스)를 펴냈다.

도의 국사는 신라 후기에 남종의 조사선을 신라 땅에 최초로 전래했으며 가지산문을 개창한 선승이다.

도의 국사의 생몰년은 정확하지 않으나 신라 선덕왕(780~785), 헌덕왕(809~826) 시절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절에 도의 국사는 한 평생 동안 입산, 득도, 수행, 중국으로의 구법, 남종선과의 만남, 전법인가, 귀국, 교화, 반발, 은거 수행, 후학양성, 산문개창 등 치열한 구도자의 길을 갔다.

당시 도의 국사는 새로운 진리를 찾는다는 소박한 구도자의

길을 가지던 그가 걸었던 길은 1000년이 넘게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광식 교수는 “도의 국사의 연구는 한국불교의 의미, 위상, 선사상, 현실성, 다양성, 복잡성, 종단성 등이 혼재돼 있다”며 “소박한 구도자의 길을 가지던 그가 걸었던 길이 이렇듯 1000년이 넘게 한국불교에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결맞은 연구는 지금껏 심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의국사 연구>는 2009년 7월 만해죽전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도의국사와 가지산문’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바탕으로 했다.

책은 △도의 선사의 생애와 선사상(정성본) △도의 국사의 구법과 중국 선불교(차차석) △신라 하대 도의 선사의 설안산 문 개창과 그 항배(조범환) △신라 하대 가지산문의 선종사상(김두진) △신라 도의 선사의 초기 법계와 역성사(德聖寺)(권덕영) △도의 국사의 선종사적 위상(김양정) △고려시대 가지산문의 전개 양상과 불교사적 위상(김상영) △도의 국사의 종조론 시찰(김광식) △도의 국사의 사적(史蹟)(연구(정영호) 등으로 구성됐다.

이냐은 기자

불서 6종 선정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를 발표했다.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예술 등 10개 분야에서 386종이 선정됐으며 불교관련 학술서는 6종이 선정됐다.

불교를 주제로한 학술서는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김용표, 정우서적) △청규와 차(수인 스님, 동국대출판부) △유식십삼승과 유식불교(김명우, 예문서원)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박광준, 한길사) △한글법화경과 가나법화경의 언어(김기혁·나카무라 에미코, 이

회문화사) △고전시가와 불교(조규익, 학교밖)이다.

문광부는 1996년부터 매해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 선정지원사업’을 실시해 우수한 학술도서를 선정·보급함으로써 학술 출판 진흥 및 출판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문광부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 사이에 초판 발행된 도서 중 신청된 도서 3027종을 심사해 총류 10종, 철학 19종, 종교 11종, 사회과학 132종, 순수과학 12종, 기술과학 85종, 예술 20종, 언어 22종, 문학 45종, 역사 30종 등 10개 분야 386종을 선정했다.

선정된 도서는 종당 약 1000만원 규모로 구입해 공공도서관, 병영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냐은 기자

■ 승보종찰 송광사 16국사는...

-제1세 보조국사 지눌(1158~1210·사진): 1200년 송광산 길상사에서 11년간 대중들에게 불법을 펼치며 제자 핵심과 신앙결사 사모임인 수선사를 전개했다.

-제2세 진각국사 핵심(1178~1234): 왕명으로 수선사주가 돼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하고 강종의 지원으로 도량을 증축했다. 핵심이 이끈 승려 만해도 1천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 실권자 최우도 그의 도품을 듣고 개경으로 모시고자 했으며 그의 두 아들을 맡기기도 했다.

-제3세 천진국사 몽어(?~1252년): 고종이 특별히 비준해 대선사가 됐다. <정혜사입원축법주소>에 의하면 몽어대에 이르러 선풍이 크게 떨치게 됐다고 한다.

-제4세 진명국사 혼원(1191~1271): 1245년 강화국도에 제2의 선원사가 창건되자 최충현의 청을 받아들여 1246년 승려 3천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낙성회를 주맹했다. 몽어가 입적하자 수선사 사주가 돼 지눌의 선종을

불러 일으켰다. 왕이 몽어의 덕을 흠모해 1259년 왕사로 책봉돼 당시 불교계를 주도했다.

-제5세 원오국사 천영(1215~1286): 핵심에게 출가해 1250년 선원사 주지가 됐다. 그는 1251년 3대 선원인 보혜사 별원이 강화국도에 건립되자 9산문의 선승들이 참가한 가운데 법회를 주관했고 스승 혼원이 수선사 사주가 돼 선원사 사주가 됐다. 원종대에 궁중에서 제국대장공주의 존경을 받는 등 종실과 경대부뿐만 아니라 다른 종파의 승앙을 받았다.

-제6세 원강국사 총지(1226~1292): 천영에 이어 수선사 사주가 된 총지는 7년간 주석하며 보조의 유지를 빛나게 했다. 원나라 세조에게 수선사의 토지를 보국하는 상소를 올려 절의 재정을 보강케 했고 이 일로 원 황제의 초청으로 대도에 가서 스승의 대접을 받았다.

-제7세 이정국사

-제8세 자각국사 도영



-제9세 당당국사

-제10세 해강국사 만항(1249~1319)

-제11세 자원국사

-제12세 해각국사

-제13세 각진국사 북구(1270~1355)

-제14세 정혜국사

-제15세 흥진국사

-제16세 고봉국사 법장(1350~1428)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유네스코등재)

佛敎儀式 (범음) 學人 모집

불교의식 교육원 대각사에서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전과정 무료교육)

기본 과정	사물, 도량식, 쇠송, 예불, 불공식식 등
중급 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육, 작법, 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천수바라, 요잡바라,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 및 특수작법 등은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약 30명

■ 모집기간 : 2010년 7월 10일까지 접수함.

■ 개강일시 : 2010년 7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단, 법회날은 익일로 함)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1통, 여권사진 3장

※ 본 교육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지망생의 수계 득도, 포교원, 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불교의식을 어렵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대각사 불교의식 교육원 서라벌 범음대학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813번지 전화 053)983-6421 / 010-4783-0077 대광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심성 정화교육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 템플스테이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영혼이 깃든 함월산의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단련을 위해 제37회 (19년 전통)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를 통한 심신치유 프로그램과
- ☞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캠프』
- ☞ 또한 스님의 불교 강의로 인성교육을 지도합니다.



※ 연 제 : 2010년 7월 ~ 2010년 8월

※ 모 집 인 원 : 매주 일요일 10시~15시 입소 토요일 11시 퇴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 수 시 모 집 : 1주 / 2주 / 3주 / 4주 이상 (※1개월씩 4회 이상 수련 시 1만 승단심사자격 부여)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련 회 비 : 1주-28만원 · 2주-56만원 · 3주-75만원 · 4주-90만원 / 1일 4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농협 721107-51-021211 (예금주: 골굴사)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 744-1689 / Fax 054)775-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 * 수련내용 : 1. 불교의 아나파나사타 명상 · 선요가 · 선기공 · 선무술 · 불교한문 · 전통문화 (판소리, 승마, 마도, 전통춤)
- 2. 화랑의 기상과 호연지기를 느끼는 승마체험, 숲속 생태체험
- 3. 주 1회 성지순례 : 장항사지 · 감은사지 · 문무대왕릉 · 국립박물관 (3주차이상)

*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모자 · 개인 컵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기기)

<< 일 과 표 >>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5:00	기상	10:00	오전 선무도 수련	13:00	독서와 사색	17:00	저녁 공양
5:30	새벽 예불 · 좌선 및 행선	11:00	108배 참회기도	14:00	전통문화 감상(판소리, 마도, 승마 등)	18:30	저녁 예불
6:30	아침 공양 (주 1회 발우공양)		· 자아를 향한 서원	15:00	오후 선무도 수련	19:00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8:30	영어회화 · 불교 강의	11:30	점심 공양	16:00	울력(도량 청소 및 정리)	21:00	점호 및 취침

1500년 전통사찰 · 선인원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 선무도 대학